

# 작은 도마뱀 - 11월호



## 청춘불패(青春不敗)

What can we do?

Feeding program, 우리는 이렇게 할 거예요!

ALS, 그 세 번째 이야기 @San Ignacio\_ 아이들에게  
건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축볼 하나\_ Baloc Livelihood project, 새로운 출발

Acculturate, Enculturate!

Are you happy?

필리핀에서 농구란?

We are TRULY living here!

고마워, 제프리! \* 티 확~ 나는 생일 파티

중간평가\_ 5개월의 중남에서 '아, 역시 필(리핀)팀이야!'를 외치다!

[자칭특집] 상큼한 걸들의 뒷이야기:  
필리핀 YMCA 100주년 행사 & post trip

11월의 스케치북



Mon	Tue	Wen	Thu	Fri	Sat	Sun
	1 Holiday	2 Holiday	3 Feeding @Bagong Pook E/S Birthday of Jeffrey	4 Mapping @San Gregorio	5 English & Tagalog Class Karate	6 Go to trip! Mahayhay, Taytay falls Birthday of Honey
7 Liliw -> San Pablo Kuya Lito's house Birthday of Genie	8 Mid-term Evaluation Preparation	9 Mid-term Evaluation Preparation	10 Feeding @Bagong Pook E/S	11 Mid-term Evaluation YMCA of the Philippines 100 <sup>th</sup> Anniversary	12 Mid-term Evaluation: Presentation	13 Post trip PANGASINAN
14 Post trip BAGUIO	15 Post trip Manila Downtown	16 Come back to San Pablo	17 Feeding @Bagong Pook E/S Visit San Benito	18 ALS Class San Gregorio, San Ignacio	19 English & Tagalog Class Karate	20 English & Tagalog Class Karate
21 ALS Class: San Ignacio Visit Baloc	22 Visit Baloc	23 Medical Mission @SM mall ALS Class: San Ignacio	24 Feeding @Bagong Pook E/S Meeting with parents	25 Mapping to San Gregorio ALS Class: San Ignacio	26 Start Gardening English & Tagalog Class Karate	27 Karate
28 ALS Class: San Ignacio	29 Day for Monthly Report!	30 Holiday				

**What can we do?** 라온아띠 6기 필리핀 팀의 정기적인 프로그램 이야기를 담은 코너입니다. 9월부터 지금까지 지속된 프로그램으로는 Feeding 과 ALS 이야기, 10 월에는 오로라 커뮤니티와 END POVERTY 캠페인 이야기가 더해졌고, 11 월에는 새롭게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활동하게 될 BALOC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Acculturate, Enculturate!** Community Organizing/Community Development(이하 C.O/C.D)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필리핀에서 활동하면서 우리 필리핀 팀은 그 과정에 따라 라온아띠 삼각형을 만들었습니다. 그 삼각형의 요소는 바로 Acculturation, Enculturation, Creative Action! Acculturation 은 새로운 문화를 보고 느끼는 과정을 의미하고(Go to the people, Live among them), Enculturation 은 그 문화에 적응하고 사람들과 사회를 이해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Learn from them, Plan with them, Work with them) 마지막 단계인 Creative Action 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 곳의 사람들과 함께 사람들을 위한 무언가를 만드는 단계를 의미합니다.(Start with what they know, Build on what they have) 코너의 이름만큼, 이 부분에는 우리가 필리핀에서 생활하면서 보고 느낀 문화와 감수성, 그리고 아시아의 감수성이란 무엇일까요 고민해 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담은 코너입니다.



**We are TRULY living here!** 정기적인 활동 이외에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새롭고 만난 경험들은 끝이 없습니다. 한 달 동안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던 다양한 경험들과, 각자가 자신의 한 달을 돌아보며 정리한 리플렉션을 스케치북에 담았습니다.

\* 캐릭터 소개 \*



Daniel[다니엘]: 정동수. 통돌이(세탁기 통돌이, 빨래하는 품이 일품이다), 쿠야 바보이(쿠야는 형이나 오빠, 바보이는 돼지를 뜻한다..), 9준포(토퍼에게), 드라마를 좋아하는 소녀감성을 지님.



Albert[알버트]: 양승건. 짚순이(탈수기 짚순이, 다니엘과 콤비), 그의 아이들은 마미 라일린, 나이트메어에 시달리고 있음. 그 때문인지 잠을 자면서 누군가를 부르며 외치거나 대화를 하는 일이 잦음. 기차화통 씹아먹었음. 방구대장(혼자 틈, 플랜팅 할 때 거름으로 방구 귀기가 특기).



Honey[허~니]: 김가흔. 11 월 한달 동안 리더를 맡았다. 옆의 사건은 아띠 로퍼에게 생일날 받은 허니와 똑 닮은 미소의 지우개. 아띠 로퍼는 이 지우개를 허니와 닮아서 골랐다고 한다.



Sun[썬]: 이민선. 썬도부, 썬생님, 움스의 baby(간사님 아직은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보기엔 아직 썬은 마음이 없어 보인답니다)



Genie[저니]: 문건희. 아띠 바보이(제프리가 맨날 똥똥하다고 놀려서..영영 요즘 살이 오르긴 했다), 금잔D(토퍼에게), 뽕(좋아할) 상, 라온아띠의 마미 라일린.(이 달의 인명사전 참고), 작지 않은 몸집 탓에 가라테 클래스에서 항상 소년들과 파트너를.. 요즘 가라테 물이 오름.

월간 소식지 '작은 도마뱀'을 더 재미있게 읽기 위해 참고해야 할 것!!

\* 11 월의 따갈로그어 및 인명 사전 \*

MaSipag[마시팍]: 열심히 일하는. 우리는 항상 마시팍!

Mataba[마타바]: 똥똥하다. 5개월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최고 걱정거리..

Bayad[바이안]: 돈을 내다. Pay. 싸리싸리 스토어(우리나라의 구멍가게와 비슷한 상점)에서 물건을 사거나 트라이시클, 지프니 등의 교통 수단을 탈 때 등 일상 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말.

Makano[마카노]: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봤으면 그 다음 차례는 바이안 포!

Mabuhay![마부하이]: Long Live. Welcome의 의미로 자주 쓰이며 공항이나 모든 바랑가이 입구에서 볼 수 있다.

Lahat[라하트]: 모두(All). 우리 모두 행복해요!

Barong[바롱]: 필리핀 전통의상으로 주요 행사 때 입는다. 중간평가 이야기 사전 속 남자 단원들 참고!

Pusa[부사]: 고양이. 우리의 마미 크리스티는 놀랄 때 Pusa!를 외치는 습관이 있다. 알버트도 덩달아 똬에 배어버려서, 그가 Pusa!를 외칠 때면 그 주변은 찬바탕 웃음 바다.

Sampol[쌘폴]: Sample. 장기자랑을 할 때도 쌘폴! 쌘폴!, ALS class에서 학생들이 앞에 나와서 문제를 풀거나 우리가 설명을 하다가 예를 들어줄 때에도 쌘폴!

Bagong Pook[바공 포옥]: 우리가 살고 있는 바랑가이(마을) 이름. Bagong은 New를, Pook은 Place를 뜻한다. 우리는 '새로운 곳'에 산다.



Mommy Lyllene[마미 라일린]: 우리의 숙소에서 같이 생활하시는 어머니! 우리의 다른 Mommy이다. 넉넉한 웃음과 넘치는 유머, 강력한 파워를 소유하고 계시며 항상 행복한 우리의 식사를 책임져 주신다. 피곤한 날에도 항상 활력 넘치고 긍정적인 그녀를 만나면 Everything is OK. 그녀는 우리의 비타민 같은 존재이다. 특히 ALBERT에게!

Ian[아이안]: 마미 크리스티가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 작은 체구지만 날렵하고 탄탄한 몸의 소유자! 케첩이 없이는 밥을 먹지 못하는 만 19세 청년이다. 11월부터 매주 목요일 피딩 프로그램에 제 6의 멤버로 참여하게 됐다. 엄마의 속을 가끔 썩이긴 하지만, 한편으로 마음 여리고 의젓한 우리의 친구.



Bernie[버니]: 21세. YMCA of San Pablo의 Batang Y(청년 자원봉사자)들 중 맏형. 하얀 차이를 보이며 웃을 때면 그 모습이 흡사 70년대 뚱 여성들의 마음을 흔든던 홍콩배우가 따로 없다. 하지만 평소에 자주 찡그리고 있어 안타깝다. 맏형답게 YMCA에서의 모든 일들을 척척, 똑딱똑딱 잘도 해낸다.

Jomarc[조막]: 16세. YMCA of San Pablo의 Batang Y(청년 자원봉사자)들 중 막내. 훤년이 든 것 같은 허어 스타일. 익살스러운 표정과 음이탈이 날 것 같은 목소리로 허니의 관심을 찬 몸매 받고 있다. 하지만 허니의 말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조막은 영어를 모른다..



Toffer[토퍼]: Mommy 크리스티의 God SON이자 제 5의 바탕Y..인 것처럼 성실하게 YMCA의 일을 돕는 청년. 작년 산파블로 YMCA 기숙사에서 투숙한 경험이 있다. 집은 Batangas이지만 일자리를 얻기 위해 산파블로 시티로 다시 돌아왔다. 당나귀상..(쏘리 토퍼^^) 썸을 베이비라 부르고 있다. 처음엔 장난으로 시작했지만 현재는 장난이 아닐지도!! 썸도 관심에 보답하기 위해 달링이라 불러주고 있지만 아직 그의 마음을 받아줄 생각은 없어 보인다.

# 라운아띠는

## 청춘불패(靑春不敗)다.



청춘에게 패배란 없다!

이 말이 다만 '실패란 없다'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쇼. 성공도 실패도 다 젊은 날의 내 경험이 될 수 있다는 말. 실패를 실패라 인정하고 그 안에서 배울 점을 찾는다면, 그리고 배움으로 인해 조금 더 나아진다면 실패란 우리의 이야기가 되고는 성공이 될 것입니다.

갑자기 왜 성공, 실패 운운하냐구요? 음, 11월 한 달이 우리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남긴 것 같습니다. 11월 초에는 중간평가를 앞두고서 우리가 어떻게 활동했었는지 함께 이야기해보고, 각자가 라운아띠를 지원한 이유와 그 때의 초심을 되새겨보았습니다. 중간평가가

끝나고서는 남은 두 달 반여를 어떻게 더 잘 살 수 있을 것인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해 생각했던 시간이었슈요. 지금까지의 시간 동안 여러 감정들이 교차하고 서로 부대였지만 힘들었던 시간, 즐거웠던 시간 그 모두가 나 자신의, 우리의 경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무언가를 배워가며 내가 조금이나마 성장했다는 것도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상황이 다가오든, 어떤 감정이 찾아오든 마음을 열고 자신 있게 다가서면 되리라는 거쇼. 그래서 망망하게 맞서려고 합니다! 그리고 치열하게 생각해보려 합니다! 내가 라운아띠를 선택한 이유,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절반이나 지나버렸지만, 아직 절반이나 남았습니다. 다시 한 번 마음잡고 준비 땅!

# What can we do?

Feeding program, 우리는 이렇게 할 거예요! \* ALS, 2 세 번째 이야기 @San Ignacio\_ 아이들에게 건져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쫓붙 하나- Baloc Livelihood project, 새로운 출발

## Feeding program, 우리는 이렇게 할 거예요!

Written by Daniel

매주 목요일 오전 8 시 30 분. 우리는 다른 날보다 부지런히 아침을 준비한다. 바공 포옥 초등학교에서 피딩 프로그램이 있는 날이기 때문이다. 벌써 석 달째..... 아이들과의 첫 만남, 준비도 되지 않은 채 한 시간 동안 뛰어 놀았던 그 날이 엇그제 같은데. 역시 시간은 참 빠르다. 안타깝게도 지난 9 월과 10 월에는 아이들의 방학과 라온아띠의 다른 커뮤니티 방문 등 많은 일정으로 매주 진행하지 못했었는데, 다행히 이번 달은 찬달 내내 찬번도 빠짐없이 피딩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었다.



우리의 첫 번째 프로그램은 지난 달에 SM(필리핀의 유명한 Shopping Mall)에서 가졌던 END POVERTY 캠페인의 연장선으로 아이들과 함께 작은 화이트 리본을 만드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아이들에게 END POVERTY 에 대해 알려주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 내용이 아닐까 고민되어 망설여졌다. 하지만 이미 만들어져 있던 따갈로그어로 되어있는 설명문을 활용하여 END POVERTY 의 의미를 비교적 간단하게 알리고, 이에 대한 생각, 소망 등을 화이트 리본에 적는 정도라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여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우려와는 달리 아이들은 어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즐겁게 미니 캠페인에 참여해주었다. 작은 화이트 리본이 아이들에게는 큰 즐거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다음 프로그램으로는 한국의 대표 동요인 '곰 세 마리'를 가르쳐주고 율동도 함께 해보았다. 지난 번엔 '쭉쭉이 체조'를 따갈로그어로 번역해서 아이들에게 알려주었다면 이번엔 한국말 그대로 노래를 불러보았다. 비교적 쉽고 짧은 노래말과 귀여운 춤 동작은 아이들과 흥겹게 즐기기에 좋은 소재가 되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필리핀의 대표 교통 수단인 '지프니(Jeepney)'를 큰 종이에 그리고, 12 조각으로 나누어 그룹별로 색칠하는 미술 활동도 하였다. 3~4 명씩 소그룹으로 묶인 아이들은 각 그룹에게 주어진 그림 한 조각씩에 자유롭게 자신들만의 색을 채워나가기 시작했다. 잠시 후 다양한 색깔로 꼭 메워진 12 개의 그림 조각을 하나로 맞추니 알록달록 멋진 지프니가 완성되었다. 한 아이도 빠짐없이 모두가 집중하며 즐기는 모습에, 우리 역시 덩달아 즐겁게 시간을 보냈다.



지프니를 소재로 한 미술 활동은 아이들과 우리들, 모두가 만족했던 활동이었다. 이런 활동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동안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다. 피딩 후에 아이들이 모이지 않아 프로그램 자체를 하지 못한 적도 있었고, 준비한 재료의 양이 부족했던 적도 있었으며, 장난기 많은 아이들 때문에 프로그램 진행이 어려울 때도 있었다. 또한, 가끔은 아이들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아마도 이렇게 우리가 겪었던 지난 경험들이 쌓여 만족스러운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경험들을 단순히 에피소드로만 여기지 않고, 매일 피드백을 통해 이끌어 낸 변화가 이번 미술활동을 통해 나타난 것이다. 지난 '곰 세마리'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우리는 아이들과의 의사소통에 있어 현저한 보조교사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고 이를 다음 프로그램부터 당장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그 다음 프로그램인 미술 활동부터 마미 크리스티의 아들, 아이안도 우리와 함께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아이안이 참여한 미술 활동은 그의 활약덕분에 평소보다 더 집중된 분위기 속에서 원활히 진행 될 수 있었다. 우리는 앞으로의 활동 역시 아이안과 한 팀처럼 함께 진행하여 아이들과 좀 더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록 할 예정이다.

지금 우리는 그 동안 만나왔던 46 명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바공 포옥 초등학교 전교생인 216 명의 아이들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정규 수업이 끝나는 오후 4 시부터 약 한 시간 가량, 학교에서 그룹 지은 30 명 정도의 아이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가질 예정이다. 이 새로운 만남은 미국 YMCA 의 National Councilor 인 Ma'am 분천탄의 제안으로 시작되었다. Ma'am 분천탄은 마미 크리스티의 멘도이자 절친한 친구로 필리핀 YMCA 100 주년 행사에 참석하셨다가, 하루 시간을 내어 산파블로 YMCA 를 방문했다. 바공 포옥 초등학교를 방문한 Ma'am 분천탄은 피딩 프로그램 등록되어 있는 아이들만을 구분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에게 참여할 기회를 주는 것이 아이들에게 더 좋을 것이라고 제언하셨다. 하지만, 우리가 목요일 오전 프로그램 할 때 피딩 대상이 아닌 아이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아이들의 수업일정에 지장을 주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수업이 끝난 방과후를 이용하여 학교에서 아이들과 활동을 하면 학교에는 아이들을 돌볼 선생님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아이들에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주고 싶었다. 그래서 마미 크리스티는 YMCA 에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보면서 활동을 갖고 싶다고 바공 포옥 초등학교에 요청하였고, 이에 교장 선생님께서 흔쾌히 수락하셨다. 더불어, 이번 기회를 통해 YMCA 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는 사실을 알려 앞으로 YMCA 에 생길 작은 도서관 안에서 갖게 될 프로그램에 많은 아이들이 함께하기를 바라고 있다. (또한 마미 크리스티는 이 활동을 통해 아이들에게 YMCA 라는 단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산파블로 YMCA 가 무엇인지 알리길 원하신다.) 사실 우리 역시 더욱 많은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이미 고민하고 있었다. 우리의 계획은 연말을 맞아 바공 포옥 의 아이들을 구분 없이 YMCA 에 초대하여 즐거운 파티를 갖고자 하는 것이었다. 때문에 매 주 정규적으로 이루어질 아이들과의 특별활동은 우리에게 즐겁고 새로운 시도가 될 듯 하다. 아직은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지 계속 고민하는 중이다. 우리는 지금 아이들과의 새로운 만남을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 남은 두 달 남짓..... 더 많은 아이들에게 마음의 영양분을 줄 수 있도록 라온아띠의 피드백은 계속될 것이다.

## ALS, 그 세 번째 이야기 @San Ignacio\_ 아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Written by Honey



11 월, ALS 의 새로운 기수가 시작되는 달이다. 사실 지난 기수에 우리가 직접 수업했던 곳은 San Gregorio 향 곳 이었는데, 이번 6 기부터는 San Ignacio 라는 Barangay 에서도 처음으로 수업을 갖게 되었다. (San Gregorio 는 학생 모집이 다 되지 못해서 아직 수업이 시작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온아띠는 A&E(Acceleration & Equivalency)에서 다루는 여러 과목 중 수학을 담당하여 가르치게 되었다. 수업은 매 주 월, 수, 금요일 오후에 약 2 시간 동안 진행된다. 기간별로 집중하는 과목이 정해져 있고, 따라서 12 월 중순까지는 수학에 집중 할 계획이다. 첫 시간에는 학생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 위해 level test 가 실시되었고, 다음 시간부터는 구구단, 곱셈, 나눗셈 등 기본적인 산수에 대한 연습문제를 풀어나가기 시작했다. 이곳 San Ignacio 의 학생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산수에 능한 모습을 보였다. 구구단은 거의 모든 학생이 기본적으로 숙지하고 있고, 계산하는 속도 역시 빨랐다. 가끔은 우리보다 더 빠르게 답을 찾아내는 학생도 있었다. 그 뿐만이 아니다. 이곳의 아이들은 단순히 산수 실력만 높은 것이 아니라, 공부에 대한 열정 역시 높았다.

어느 날은 한 여학생이 수업이 시작되고 20 여분 지나서 왔던 적이 있었다. 사실 9 월에 우리가 진행했던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지각하는 일은 흔히 일어나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 여학생의 모습은 우리가 보아왔던 모습과 달랐다. 그녀는 수업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친구에게 화가 나 자리에 앉지 않고 찬참을 서있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녀가 이 수업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사실 그 여학생은 이제 열 일곱 살이지만, 적목이 아기의 엄마다. 그녀는 항상 찬 손에는 아기를 안고, 나머지 찬 손에는 편을 들고 수업을 듣는다. 학생이 수업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동수는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그녀의 아기를 봐주는 보조역할을 하게 되었다. 동수가 동그래서일까 다행히도 아기는 동수를 잘 따른다.



수업에 있어서 건지찬 모습은 그 여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한 소년은 50 분이 넘도록 수업 개의 문제를 풀고 5 분의 쉬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소년의 얼굴이 수업 시간 내내 굳어있어서 혹시 불편한 것이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했는데, 수업을 마치고 떠나며 밝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고 문제를 푸느라 심각한 얼굴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또한 이곳의 학생들은 출석률도 높다. 매 시간마다 거의 모든 학생들이 제 시간에 와서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만큼 학생들은 이 수업에 성실히 참여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마을의 작은 가게 앞 당구대를 책상 삼아 공부하고 있다. 수업을 할 만한 마땅한 공간이 없기 때문이다. Barangay Hall 은 학생들이 사는 곳에서 거리가 멀고, 그 대안으로 찾았던 장소인 근처 예배당도 꽤 거리가 있다. 이곳은 교실이 아니라 의자도 부족하고, 칠판도 없다. 지난 시간에는 칠판의 필요성을 느껴 San pablo YMCA 에 있는 화이트보드를 잠시 빌려갔다. 설치할 마땅한 벽이 없어 나지막한 지붕에 대롱대롱 매달아두고 동수와 승진이 인간 벽이 되어 칠판을 지탱해가면서 수업을 진행했다. 교실이라고 하기엔 많이 소박했다. 하지만 칠판을 뚫어져라 쳐다보던 반짝반짝 빛나는 눈동자들 덕분에 수업은 어느 때보다 더 활기찼다.

아이들의 빛나는 눈동자를 볼 때면 진짜로 더 열심히 임해야겠다고 세심 다짐하게 된다.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우리의 어떠한 것을 공유할 수 있을까? 아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생각하게 된다. 문득, USA YMCA 에서 모신 Ma'am BOON chin 께서 이곳을 방문하시고 하셨던 말이 떠오른다. 그녀는 한 소년에게 왜 학교를 다니지 못했느냐고 물어보았다. 소년은 학교까지 거리가 멀어서 교통비를 해결하지 못해 다니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 대답을 듣고 진짜 소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소년이 건정으로 원하는 것이 ALS Class 일지 이야기를 꺼내었다. 아, 그렇다. 과연 아이들에게 정말 이 ALS class 가 필요한 것일까. 물론 이미 학교를 갈 시기가 지난 아이들에게는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아직 학교를 다녀야 하는 나이인 어린 아이들에게는 다른 것이 더 필요하지는 않을까? 아이들에게 더 필요한 것은 학교를 갈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는 것은 아닐까? 아이들이 진짜 원하는 것,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일까? 아직 우리는 아이들에 대해 잘 모른다. 분명히 아이들은 모두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서서히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공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San Ignacio, 그 곳 아이들의 이야기가 궁금하다. 그들을 더 많이 알아가고 싶다.



## 추출 하나 - Baloc livelihood project, 새로운 출발

Written by Sun

9 월과 10 월은 필리핀 현지에서 적응하고 다양한 삶의 모습을 관찰하는 시간이었다면 11 월은 사람들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들이 좀더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시작하는 달이었다. 그야말로 C.O(Community Organizing, 이하 C.O)가 무엇인지 몸소 체험해보는 시간이었다. 발록은 우리가 creative action 을 시작할 장소 중 하나로 이곳에서 livelihood project 를 계획하고 있다.

9 월에 우리는 띠따 윌마를 통해 발록을 우연히 방문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우리는 그곳에서 Frontline 이 운영하는 피딩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피딩 프로그램을 가졌던 학교 근처에서 쓰레기 매립장(Dumping Site)이 보이는데 그 날은 날씨가 흐려 볼 수 없어 아쉬운 마음을 안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발록을 다녀온 후, 우리는 Dumping Site 에 대해, 그리고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 더 관찰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그 후, 발록을 두 번 더 방문하여 지역주민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그들 대부분이 Dumping Site 에서 병이나 플라스틱을 주우며 사는 것보다 더 나은 일자리를 갖길 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Mommy 계선 그들의 필요를 느끼고 발록에서도 C.O 활동을 해보자고 우리에게 먼저 제안을 하였다. 우리는 그곳 사람들과 아직 깊은 대화까지 나누어보지 못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C.O 의 목적이나 필요성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알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이런 생각조차도 못했었다. 그래서 더더욱 처음 mommy 의 제안을 들었을 때도 단번에 “해보자!”라고 입맛처럼 말하지 못했던 것 같다. 11 월 어느 날, 내가 mommy 께 갑자기 했던 질문이 떠오른다. “C.O 가 뭐가요? C.O 를 왜 하나요?” 물론 내 물음은 C.O 라는 단어 자체의 의미를 묻는 물음은 아니었다. 그리고 얻은 답은 간단하고도 명확했다. 우리가 하고 있는 C.O 의 궁극적인 목표는 빈곤문제를 줄이는 것. 좀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함께 생각을 모으고 일하기 위해 커뮤니티를 조직하고 발전시키려는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우리는 mommy 와 함께 이 일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우리가 직접 그들의 필요성을 느끼고 먼저 제안한 것은 아니었지만 우리가 이곳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또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것들을 배울 수 있다면 우리도 즐겁게 활동에 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프로젝트에 임하였다.

Mommy 는 발록 프로젝트의 첫 번째 단계로 ‘누가 우리와 함께 할 것인가?(mommy 의 말을 인용하자면, 우리가 누구와 함께 테이블에 앉을 것인가?)’를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mommy 가 지목하신 그 첫 번째 대상은 Frontline. Frontline 은 기독교 단체인 이미 발록 지역의 주민들과 아이들을 위한 여러 활동(피딩 프로그램, livelihood project 의 일환인 쿼텟 프로젝트)을 벌이고 있었다. 또한, 그들은 사립학교를 세워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Frontline 과 YMCA 의 목적과 방향은 뚜렷하게 달랐다. Frontline 의 첫 번째 목표는 활동을 통해 사람들에게 선교를 하기 위한 것이라면 (Frontline 의 멤버는 모두 크리스찬이다) YMCA 는(YMCA 역시 Christian Association 이긴 하지만) 종교에 관계없이 사람들의 삶의 길을 개선시키는 것이었다. 우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Frontline 과 파트너 관계를 유지해 갈 계획이다. 우리는 이미 Frontline 의 담당자 분을 쿠야(Kuya)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우리는 그들의 필요를 좀더 자세하게 파악하기 위해 설문지를 작성하였고, Frontline 담당자 분께 메일로 보냈다. 우리가 직접 집집마다 방문해서 설문지를 돌릴 수도 있지만 시간상의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Frontline 을 통해 설문을 받기로 했다. Mommy 는 설문지를 통해 프로파일링을 한 후 오리엔테이션과 트레이닝을 할 거라고 말씀하셨다. 오리엔테이션에서도 역시 그들과 계속 인터뷰를 하고 그들의 관심을 모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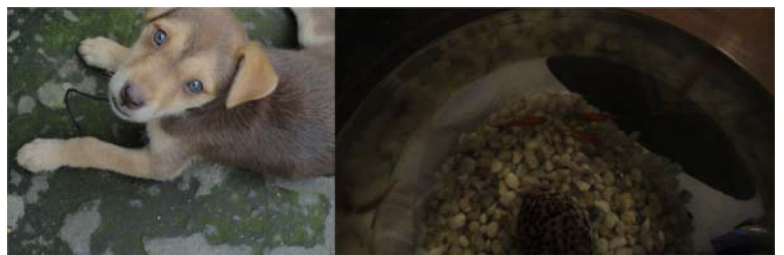
일을 할 것이다. 또한, 그룹을 지어 그 안에서 그들만의 리더를 세우는 작업을 할 것이다. 그 다음의 단계는 본격적으로 livelihood project 를 시작하는 것이다. Mommy 는 바나나칩 생산을 구상하고 계셨다. 바나나칩을 발록 지역에서도 (좀더 현지조사가 필요하지만) 쉽게 얻을 수 있고, 혹은 마켓에서 저렴한 가격의 바나나를 쉽게 구매할 수 있다. 또한, 만드는 과정이 매우 간단해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고 만든 후 내다팔 수 있는 시장으로 엄마는 몇 군데를 이미 염두에 두고 있었다. 엄마는 우리가 피딩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바공 포육 초등학교의 매점이나 주변 마켓을 공약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또한, 우리가 이미 쿠파라 부르는 Kuya Rollly는 마케팅에도 매우 뛰어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조언을 해주실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

사실 이 모든 구상은 mommy 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는 아직 발록에 대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는커녕 mommy 의 생각을 따라가기 바쁘게 이렇게라도 배우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에 함께 할 수 있어서 기뻐했다.

우리는 발록 지역의 사람들과 좀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Interview) 쿨링 작업 장소에 쿠파 Rollly와 함께 방문했다. 나는 그곳에서 Anthony 라는 청년을 만났다. 그는 열심히 쿨링 작업을 하고 있었다. 나는 그 옆에 서서 그가 일하는 것을 바라보며 대화를 시작했다. 그는 20 세 청년이었지만 이보다 더 어려 보였다. 하지만 대화를 나눌수록 그가 속 깊고 어른스러운 청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역시 Frontline 의 livelihood project 안에서 일하기 전까지는 Dumping Site 에서 쓰레기를 주우며 가족을 부양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의 꿈을 공부를 다시 시작하는 것(그는 고등학교 1 학년 과정까지 마쳤다)이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공부를 하고 싶어했다. 그는 내년엔 ALS 에서 공부를 할 계획이라 말했고 공부를 마치고 기회가 된다면 대학에서 건축공학을 공부하고 싶다고 했다. 나는 Anthony 와 이야기를 나누며 편안하게 공부하고 있는 내 자신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재능 있고 성실한 청년들에게 기회가 많이 돌아가야 하는 건데.. Mommy 는 그의 이야기를 우연히 듣고 이곳 지역에서도 우리가 ALS 수업을 열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발록 지역엔 Anthony 또래의 친구들이 15 명 정도 더 있다고 하였다. 그는 mommy 의 말씀을 듣고 나와 하이파이브를 하며 “거봐! 꿈은 이루어지잖아.”라고 말했다.



우리는 12 월 첫째 주부터 mapping 을 시작해 둘째 주(혹은 셋째 주)부터 ALS 수업을 이곳에서 새롭게 열 계획이다. 발록에서의 livelihood 프로젝트도, ALS 수업도 모두 성공하길 바라본다. 또한, 그렇게 되기 위해 우리는 더욱더 열심히 활동할 것이다. 핫팅!



### 라오니(Raonii)와 아띠(Atti)

우리 사는 소소한 이야기 :)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라오니와 아띠는 저희들이 아니구요. Mommy 라일린이 분양해주신 두 마리의 귀여운 강아지들의 이름입니다. 아띠는 하얀색 강아지인데 마미 라일린의 집에 살고 있고, 라오니는 YMCA 의 뒷마당에서 건강하게 크고 있습니다. 쑥쑥 크고 있는 라오니와 아띠처럼 우리 라온아띠도 오래오래 쑥쑥 성장하길 바라 봅니다. 아 그리고.. 우리 이름을 딴 라온아띠 물고기도 있습니다. (이놈의 인기란;;) 제 5 의 바탕와이.. 처럼 열심히 일하는 토퍼가 YMCA 에 있는 어항에서 우리숙소로 5마리를 데려왔습니다. 이들 역시 밥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처럼요 ㅋㅋ 신기한 건 이 다섯 마리가 우리 각자의 모습을 쑥 빼닮았다는 겁니다. 가장 길쭉찬 물고기는 알버트, 가장 통통찬 물고기는 다니엘, 가장 조그만 물고기는 러니, 가장 뽀뽀찬 물고기는 썸, 작지 않고 꽤 큰 물고기는 저니.. 특히,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물고기는 꼬리에 길다란 X(애박: 대변)을 붙이고 다닙니다. 배변활동이 원활한 물고기의 모습이 건강한 다니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 Acculturate, Enculturate!

Are you happy? \* 필리핀에서 농구란?

## Are you happy?

Written by Genie

당신은 지금 행복하나요?

어느 장소나 어느 시간에 서있을 때에도 생각하게 되는 '행복'의 의미.

이곳 필리핀에서도 행복에 대한 생각은 끊이지 않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모두가 행복의 의미에 대해 조금 더 고민해보고, '행복하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곳 사람들과 함께 지내며 많이 들었던 질문 중 하나가 "Are you happy?"라는 것이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Yes!"라고 대답했지만 그리고서 항상 나 자신에게 반문하곤 했습니다.

나 지금 정말 행복하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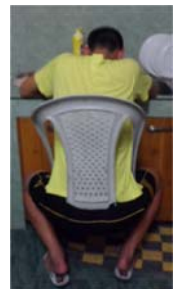
사실 한국에서도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나 혹은 즐거울 때 "나 지금 행복해"라고 말한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우린 항상 식사 전에 기도를 합니다. 처음엔 이 광경이 적잖이 어색했죠. 매 식사마다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기도를 할 때에 어떤 것을 감사하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매일매일 듣고 나니 새롭게 주어진 하루에, 맛있고 또한 부족하지 않은 음식에,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느 행사를 가도, 어느 집에 초대받아도, 우리 집에서의 매 끼 식사에도 기도는 빠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감사할 것들만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지나칠 수 있었던 것들도 찬번씩 생각해보고 감사하게 됩니다. 이런 필리핀의 분위기와 습관들이 행복하고 긍정적인 일상들을 만들어 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작은 실수들도 이곳에선 모두 쾌활한 웃음이 됩니다. 약 두 달 전 일이었을까요, 새벽 한 시경 마미 라일린과 모든 멤버들이 자고 있을 때였습니다. 화장실에서 물이 똑, 똑, 똑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다니엘은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어라 이 수도꼭지 이상한데? 손 좀 봐야겠는걸.'하고 다니엘은 수도꼭지를 그의 무게를 실어 오른쪽으로 열심히 돌려댔습니다. 그 순간, 땀이 무너진 듯 수도꼭지에선 물이 쏟아져 쏟아지기 시작했고, 다니엘은 물세례를 두 손을 뻗어 필사적으로 막았습니다. 덩달아 깬 알버트가 잠든 마미 라일린의 방문을 두드렸고 마미가 화장실로 가 보니 다니엘은 물세례를 받으며 애절하게 마미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마미는 웃음보가 터졌습니다. 2 층에 물을 잠글 수 있는 밸브가 있던 터라 여자 멤버들도 모두 깨어났습니다. 그리고선 마미에게 다니엘의 이야기를 듣고 찬바탕 웃다 잠이 들었습니다. (다니엘은 울다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날 우리는 물에 불은 다니엘의 얼굴을 보고 또 한번 빵터지고 맙니다..

마미는 아직도 말하시곤 합니다. 다니엘이 돌아갈 때 고장난 수도꼭지 기념품으로 꼭 챙겨가라고 말이죠. 알버트가 부순 엄마의 슬리퍼도, 의자도 여기선 모두 '추억거리'가 됩니다. 한국이었던라면 찬번쯤 큰소리 들었을 법한 일도 여기선 모두 웃음거리가 되니 고것 참 우리도 처음엔 어리둥절 했던거죠.



여기 필리핀에서는 가끔 당혹스럽거나 어려운 상황들이 더 나은 내일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고, 어떠한 실수나 부족함도 웃음으로 승화된 해프닝이 되고, 또 그렇게 함께하며 웃던 값진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해 감사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Thanks God! It's the Philippines!

# 필리핀에서 농구(Basketball)란?

Written by Alberto

삶의 일부이다.

나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가 농구 없이는 못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출국 전 캠프 전날에도 농구했으니까.....그만큼 농구에 대한 관심과 활동이 다양한 나는 필리핀의 농구 열기가 엄청나게 뜨겁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고 필리핀에 자원하고 싶었던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였다. 필리핀에 도착해서 처음 생긴 별명, 눈이 작고 키가 다른 사람보다 큰 나에게 필리핀 사람들은 야오밍(중국의 농구선수)이라고 불렀다. 평소에 활동하기 편해 즐겨 입는 농구 복장을 보고 사람들이 더더욱 그렇게 생각한 듯 하다. 필리핀에서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입는 옷이 농구 저지(농구 유니폼 상의)이다. 처음 만나는 필리핀 사람들도 내가 농구 하는 사람처럼 생긴터다가 농구 저지까지 입고 있으니 내게 먼저 다가와서 “농구 좋아해? 같이 하자!” 라는 식으로 인사를 건넨다.



농구 역사를 잠깐 이야기 하면 1970 년도 까지만 해도 아시아 농구 최강국은 필리핀이었다. 그 이후 중국이 국제대회에 참가하고 한국과 중동국가 들에게 왕관을 내주었지만 항상 8 강 안에 들 정도로 농구 강국이다. 그 정도로 필리핀 사람들의 농구열기는 대단하다. 예를 들면, 필리핀 농구리그인 PBO 의 스타는 엄청난 인기를 가지고 있다. 또 요즘 필리핀의 스타 역시 필리핀 사람으로서 처음으로 NBA 팀의 감독이 된 에릭 스포테스텔라다. 그는 매년 비 시즌에 마닐라에서 농구 클리닉을 개최한다고 한다. 참고로 그는 San Pablo 출신이다.

필리핀의 웬만한 바랑가이에는 대부분 농구 골대가 설치되어 있다. 간혹 집안에 농구코트가 있는 경우도 있다. 모랫바닥, 흙바닥, 고무바닥, 시멘트 등등 땅의 특성을 막론하고 필리핀 사람들은 항상 농구를 즐긴다. 우리나라 코트보다 시설 면에서는 떨어질지 몰라도 그 수와 사람들의 열정이 농구를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써 정말 부러웠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길거리 농구코트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더욱 그러한 듯 하다.



필리핀에서 3 개월 가량 지내면서 나 역시 그들과 함께 수 없이 농구를 했다. 처음에는 한국 사람이고 큰 키 때문에 나를 기워주지 않은 적도 있었다. 하지만 YMCA 가족들과 같이 농구를 하면서 그들이 날 소개해 주면서 YMCA 정기 플레이어들과 같이 할 수 있게 되었다. 학창시절에 학기초반, 여색한 기류가 흐르지만 점심 시간에 공놀이 한번으로 남자들은 금세 어색함이 허물어지고(아이스 브레이킹) 친밀감을 느끼듯이 금세 그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었다. 내 취미인 농구를 통해서 사람들과 만나고 친해지며 그 사람들의 커뮤니티에 함께 할 수 있고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행복했다. 운동이 끝나고 같이 쉬면서 그들에게 농구는 어떤 의미인지 물어 보

적이 있었다. 나처럼 취미로, 농구를 통해 에너지를 느끼는 사람들도 있고 체력관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공통된 의견은 필리핀 사람들은 농구 없이는 못산다고 했다. 단순히 운동이나 체육, 재미를 넘어서 사람들과의 친목의 수단이자 그들 삶의 일부라고 한다. 남녀노소와 빈부, 실력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모든 필리핀 사람들은 농구 할 때 하나가 된다. 나도 농구를 할 때 그들과 전혀 다름을 느끼지 못한다. 적어도 코트 안에서..... 3 개월여 동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농구를 통해서 만날 수 있었다. 지금 San Pablo City 어느 곳을 가도 함께 농구했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그들이 가끔 내 이름인 Albert(o)를 가끔 기억은 못하지만 야오밍, 혹은 농구했던 tall guy 로 기억 하고 나도 그들과 교감 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 운동을 통해서 이토록 사람들과 가까워지고 교감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아마도 필리핀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자 삶의 한 부분인 농구 때문이 아닐까?



이달의 마사람!!

### 파코(Pako)

재료: 파코(애기 고사리), 토마토, 양파, 달걀, 참기름

파코는 지나와 알버트와 썬의 Favorite 음식! 양파를 한 입 깨물었을 때 코를 찡하게 하는 알싸함과 싱싱한 파코의 조화는 '음역시 이맛이야'를 외치게 만든다. 파코를 좀 더 오래 익히면 색이 거무튀튀 해지며 마치 해조류를 연상케 하는데, 이 또한 맛이 좋다. 라온아씨가 mommy와 함께 발록을 방문했을 때 쿡아 Rolly가 손수 만들어 주신 파코는 단연 일품이었다. 강가에서 자라나는 신선한 파코를 바로 따서 무쳤을 때의 그 맛은 글로 표현하기 힘들다. 맛보고 싶다면 내게 오라~!

## We are TRULY living here!

고마워, 제프리! \* 티 학~ 나는 생일 파티 \* 중간평가... 5개월의 중심에서 '아, 역시 필(리핀)립이야!'를 외치다!  
[자칭특집] 상큼한 결들의 뒷이야기: 필리핀 YMCA 100주년 행사 & post trip \* 11월의 스케치북



### 고마워, 제프리!

Written by Alberto

제프리(Jeffrey)를 기억하시나요? 지난 10 월호에 잠깐 소개 되었지요. 말했던 대로 제프리는 YMCA of San Pablo Batang Y Volunteer 의 대장을 맡고 있는 책임감 있고 건강하고 밝은 청년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활하는 거의 모든 날을 함께 하기에 정말 좋은 친구로, 그리고 동료로 지내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제프리와 같이 농구시합도 자주 하고 개인적으로 이야기도 많이 해서 더 그의 생일을 축하해주고 싶었습니다.

제프리의 생일은 11 월 3 일, 이미 우리 모두가 그의 생일을 알고 있었고 그도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어머니와 같이 서프라이즈 파티를 준비하지는 않았지만 대신 우리는 틈틈이 제프리를 위한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선물을 선정하기 위해 회의를 할 정도로 우리 모두 그의 생일을 축하하고 싶었습니다. 생일 당일, 평일이어서 활동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저녁때 파티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활동했습니다. 일단 선물을 구입해야 했는데, 처음엔 농구복을 사기로 했으나 마땅한 가격대와 좋은 재질을 찾지 못해서 필리핀 사람들이 외출복으로 즐겨 입고 제프리가 가지고 싶어하던 카라티를 구입했습니다. 제프리에게 딱 어울리는 빨간색! 그 다음 일은 케이크를 준비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음식은 어머니를 비롯해서 다른 사람들이 준비하지만 아무도 케이크를 준비하지 않아 우리가 케이크를 준비하기로 하고 건희와 함께 빵집에 가서 "Happy Birthday Our friend Jeffrey" 라는 메시지를 쓴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떠다다단...떠다다단 우리가 YMCA 에 들어갔을 때 음식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Mommy Kristy 는 제프리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인 마카로니 수프를 준비하시고 다른 바탕와이들은 생일이라고 제프리를 쉬게 하고 그의 일까지 도맡아 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모든 YMCA 일정과 음식 준비가 끝나고 드디어 파티가 시작되었습니다. 생일축하 노래를 부르고 선물도 전달하고 소원을 빌며 촛불을 끄려는 순간, 열레?



제프리가 눈시울을 붉히는 것이었습니다. 마초(스페인말로 힘세다는 의미가 원래 의미)의 상징이자 남자중의 남자인 제프리가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19 번째 생일인데 케이크를 받고 선물을 받은 생일이 이번이 처음이라 그랬던 것이었습니다. 제프리가 눈시울을 붉히고 우리에게 정말 고맙다고 하며 뜨겁게 포옹해줄 때 나도 눈물이 나올 뻔 했습니다. 음식을 먹기 전 다같이 기도할 때

나는 작은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를 도와줘서,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맙고 A&E Test 꼭 통과해서 하고 싶은 공부(컴퓨터 Repair)마치고 꿈을 펼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날 비록 평일이고 다음날 많은 일정이 있어서 늦게까지 함께 하진 못했지만 정말 고마운 친구 제프리의 생일을 축하해 주어서 내 생일만큼 기뻐했던 그날, 잊지 못할 겁니다.

이건 추신인데 11 월 3 일을 기점으로 함께 했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금연! 제프리는 지금도 담배를 입에 대지 않고 있습니다. 참 대단하죠. 저는……하루 만에 다시 시작해버렸습니다. 제프리가 엄청나게 웃었죠. 너무 무리하지 말라며. 하하하…그와 함께한 여러 추억이 셀 수도 없지만 제프리에게 의미가 큰 그날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제프리가 홍상표 간사님께 선물 고맙다고 꼭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정말 잘 어울리던데요? 정말 마음에 들어서 자주 입고 있습니다. 저도 고맙단 말씀 다시 한번 하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홍상표 간사님! 하하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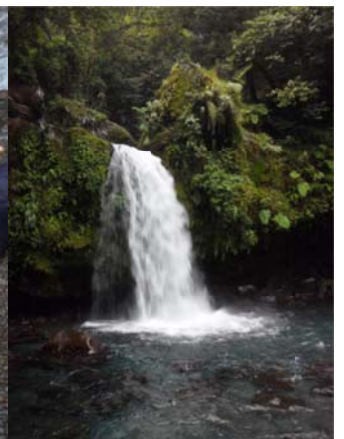
## 티 확~ 나는 생일 파티

Written by Daniel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11 월 6 일, 우리는 이른 아침을 깨우며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영어로, 한국어로, 느리게, 그리고 빠르게… 하하하, 벌써 네 번이나 불렀네요. 가훈이의 24 번째 생일이기 때문이죠. 지난 9 월, 승건의 생일에 이은 라온아피의 두 번째 생일. 그리고 또 한번의 생일, 11 월 7 일은 건희의 22 번째 생일이었죠. 아피 두 명의 생일이 겹치다 보니 우리는 써프라이즈~ 생일 파티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어요. 그래도 조심조심 롤링 페이퍼를 돌렸고요, 눈치 채지 못하게 몰래 쇼핑몰 가서 선물도 샀지요. 가훈이의 생일날, 우리는 가훈이와 건희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YMCA 식구들과 함께 Taytay 폭포로 여행을 떠나게 됐어요. 지난 3 일 생일이었던 바탕 Y 의 제프리 군도 동행하기로 했지요. 모두들 찬껏 들뜬 마음으로 지프니에 몸을 실었어요. 아침, 가훈이의 아침에 분홍 장미도 함께 했어요. 분홍 장미는 아침에 아피 로피에게 선물 받았는데 생일이 끝나는 자정까지 가훈이가 티리고 다니기로 했기 때문이죠.

폭포로 가는 길은 생각보다 가깝지 않았습니다. 지프니를 한번 더 갈아타야 했죠. 길지 않은 여행길 동안, 우리는 생일축하 노래를 또 불렀어요. 부르고 또 불러도 아직 폭포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마침내, 도착!.. 인 줄 알았는데.. 지프니를 내려 한참을 걷고 또 걸었어요. 정말, 건짜로, 드디어! 폭포에 도착했죠. 정말 폭포였어요. 요 몇 일 비가 많이 내려서인지 물이 팔팔팔 쏟아지고 있었지요. 보슬보슬 내리는 빗방울을 맞으며 우리는 텐트에 짐을 넣고 미리 준비한 음식을 차리고 소시지를 숯불에 구우며 점심을 준비했지요. 어김없이 우리는 또 생일 축하 노래를 신나게 부르고 점심을 먹었어요. 식사 후, 우리는 폭포에서 물놀이를 시작했습니다. 폭포라고 해서 엄청 바닥이 깊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깊지 않아서 안전하게 놀았죠. 폭포 밑까지 헤엄쳐서 사진도 찍었고요, 폭포를 뚫고 나오기도 했고, 놀다 지쳐 이끼에 ‘RAONATTI’라고 글씨도 새겼고, 그리고 우리의 소망을 담은 작은 돌탑도 쌓았지요. 오랜만에 동심으로 돌아가 마미 크리스티도 제프리도 씬도 라온아피도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상쾌한 기운으로 재충전한 우리는 근처의 아띠 로띠의 할대니 댁에 머물기로 했어요. 우리는 이곳에서 작은 파티를 했지요. 조심조심 준비한 롤링페이퍼는 거대한 사이즈 때문에 들고 오는 길에 결국 들켜버렸어요. '너무 티나는 거 아냐? ㅎㅎㅎㅎ'라는 가훈이의 물음에 민선은 '어쩔 수 없잖아~^^;;'라고 대답할 수 밖에 없었죠 ㅎㅎ. 우리는 나름 몰래 준비한 선물을 주고, 띠띠 그레이스가 부탁하신 선물도 대신 전달해주었어요. 역시 여기서 빠질 수 없는 것, 생일 축하 노래 메들리는 계속 되었죠. 생일을 맞은 아띠들이 행복해하니 우리 모두 행복해했습니다. 아, 가훈이는 이날 띠띠 그레이스가 주신 핑크색 리본이 달린 하얀 곰 인형 핑키를 매일 밤마다 꼭 껴안고 자고 있습니다^^. 건희는 곰 인형이 몸에 비해 너무 작아서, 샅포시 머리맡에 올려놓고 자구요. 식사 후엔 약간의 알코올과 함께 밤하늘의 별을 보며 즐거운 담소를 나누기도 했지요. 그리고 다음날인 7일, 이날도 역시 생일 축하 노래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건희의 건짜 생일은 이 날이었으니까요. 간단한 아침 식사 후 우리는 산파블로로 가는 길에 우리가 묵었던 Mahayhay 에서 가장 오래되었다는 교회와 Liliw(필리핀의 슬리퍼 수도라는!)에 들렀어요. 이날도 역시 지치지 않고 여기저기 둘러보고 함께 사진을 찍기에 여념이 없었죠. 그리고선 다시 지프니를 타고 산파블로로 돌아왔어요. 어제 건희의 생일 파티는 끝이 났지만 생일 축하 노래는 그 날, 하루가 다 가도록 끝나지 않았어요. 11월 6일, 7일은 사랑스러운 아띠들의 생일 덕분에 다른 아띠들도 덩달아 행복하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었던 날이었죠. 남은 기간 동안에도 이날처럼 모두가 행복하고 즐겁게, 건강하게 보낼 수 있기를 기도하며, 우리 아띠들, 하나하나 모두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 중간평가\_ 5개월의 중실에서 '아, 역시 필(리핀)팀이야!'를 외치다!

Written by Honey

우리가 필리핀에서 보내게 되는 중간 달, 11월이 왔다. 중간 달, 그러니까 중간평가가 있다. 이 달이 시작되고 우리는 바로 중간평가 준비를 시작했다.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할 잠깐의 찰나도 없이 우리의 이야기는 바로 술술 풀려나갔다. (이렇게 적으면 이 글을 읽는 다른 사람들이 어찌 생각할 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수월했다. 꾸준히 서로의 이야기를 공유하며 지난 10주를 지내왔기에 예상보다 더 우리의 이야기는 정리되어 있었고, 아이디어도 착착 나왔다. 오예! 회의를 진행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아, 역시 필(리핀)팀이야!'를 외치며 차근차근 함께 해나갔다.

우리의 중간평가는 11월 11일 필리핀 YMCA 100주년 기념행사와 맞물려 조금은 바쁜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이곳 필리핀에는 한국 YMCA 남부원 사무총장님과 안산 YMCA 홍상표 간사님 그리고 한국 YMCA 라온아띠 담당 박소영 간사님께서 평가단으로 방문하셨다. 사실 중간평가를 준비하면서도 우리가 진짜 중간평가를 갖는 것인가, 벌써 절반의 시간이 흐른 것인가, 그야말로 열덜덜했다. 하지만 11일 오후 3시쯤, San pablo YMCA 앞마당에서 한국에서 온 반가운 분들과 인사를 나누는 순간 '아! 진짜 중간평가구나!' 하고 비로소 설감하게 되었다. San pablo YMCA를 함께 둘러보면서 소개해드리고 그 후, ALS class가 진행되는 San Gregorio와 Gawad Kalinga를 방문했다. 그리고 Feeding program이 있는 Bagong Pook 초등학교도 둘러보았다. 마지막으로 숙소를 방문해서 우리가 사는 모습을 둘러보시고 간식을 함께 먹고 마닐라로 출발했다.

오후 8시쯤 마닐라에 도착하여 필리핀 YMCA의 10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했다. 여자단원들은 다소곳이 한복을 입고 남자단원들은 Mommy Kristy와 함께 필리핀 전통 의상인 barong을 차려 입었다. 동수와 승건은 제법 필리피노 같았다.



다음 날 오전 남부원 총장님이 포럼에 참가하시고, 우리는 지난 저녁 행사에서 우연히 만나 뵈게 된 수원 YMCA 황용원 사무총장님과 상표 간사님 그리고 소영 간사님과 함께 근처 SM Mall 에 들어가서 커피한잔과 담소를 나누었다. 황총장님께서는 자신의 인생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뜻 깊은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주셨다. 황총장님은 성공해도 너희의 것이고 비록 실패하더라도 그 것 역시 너희의 것으로 남을 것이니, 무엇을 하든 그 성패 자체에만 연연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다.

오후에는 한국에서 오신 평가단 3 분과 필리핀 YMCA 사무총장이신 Tita Elsie, USA YMCA에서 오신 Ma'am boon chin, 그리고 Mommy Kristy 의 참관 하에 중간 발표를 하였다. 중간평가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Mommy Kristy 도 울고, 나도 울고, 전희도 울고, 민선이기도 울었다. 소영 간사님 말에 따르면 이번 평가가 소규모로 진행되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더 발표 시간 동안 서로의 느낌을 공유하는 특별함이 있었던 것 같다. 그 눈물의 의미는 아마 라온아피 중간평가를 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을 것이다...

저녁은 성공적인 발표를 자축하는 의미로 '카우보이 그릴'이라는 거대한 식당에 가서 마음껏 먹었다. 진짜 배불리 먹었다. 중간평가를 마치고 무언가 허했던 속을 먹을 것으로 가득 채운 기분이었다.

그리고, 밤새 소영 간사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들어주었다. 그 날 밤, 결국 소영 간사님은 한숨도 못 잤다. 다음 날 일정한 캠프다이에 가서 안 피곤하셨는지 걱정되는 한편, 이 글로나마 건담으로 감사했다고 이야기를 전하고 싶다!! 소영 간사님, 읽고 있으시죠? 감사합니다. 저희 덕분에 더 잘 지냅니다! ☺ 또, 상표간사님, 안산 YMCA 사무총장님! 사수신 모자 완전 잘 쓰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이가 아주 애용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저희 돌아가면 안산으로 달려갈게요! 그리고 남부원 총장님, 저희 건강하게 사이 좋게 잘 지내다 돌아가겠습니다. 총장님께서 해 주신 말씀 잘 새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원 Y 황총장님, 저희 수원 Y 가면 맛있는 거 사수신다고 하셨죠~ 꼭 찾아 가겠습니다. 그 때 뵈어요!!



**씨..씨를 뿌리고 ♪ - 텃밭 가꾸기 시~작!!**

YMCA 앞마당 한 칸에 우리만의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다. 바탕와이+토퍼 & 인과 라온아피 & 시이 각각 제비 뽑기로 짝꿍을 정했다. 다니엘&제프리, 알버트&롬닉, 허니&버니, 지니&토퍼, 썬&조맘으로 짝이 정해졌다. 그러나, 요즘 찬창 사랑의 새싹을 키우기 시작한 썬과 토퍼가 그 열매를 잘 맺어보라는 의미에서 지니와 썬은 서로 짝꿍을 자연스럽게 바꾸었다. 한 짝꿍당 2개씩 밭을 맡아 총 10개의 밭에 고추, 토마토, 무, 칼라만시(작은 레몬), 생강, 파파야, 피차이(petchay) 등 다양한 채소를 심었다. 곧, 우리 손으로 직접 기른 싱싱한 채소가 식탁에 오를 모습이 기대된다. 아~ 맛있겠다!!



**[자칭특집] 상콤한 걸들의 뒷이야기: 필리핀 YMCA 100주년 행사 & Post trip**

Written by Genie & Sun

올해는 필리핀 YMCA 가 100 주년이 되는 아주 특별한 해입니다. 우리 라온아피는 100 주년 행사를 마미 크리스티와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행사를 마치고는 필리핀과 또한 다른 여러 국가에서 참석한 General Secretary, Director 들이 함께하는 2박 3 일간의 여행이 있었는데요, 동행한 이 여행 역시 라온아피의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습니다. 지니와 썬의 대화에는 YMCA 필리핀의 100 주년 행사부터 여행까지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여행의 일정: 13 일 일요일 오후 1 시 마닐라에서 팡가시안(PANGASINAN)으로 출발 -> 팡가시안 YMCA 에서 하룻밤 -> 14 일 오전 팡가시안 투어 -> 바기오(BAGUIO)로 출발 -> 바기오 YMCA 에서 하룻밤 -> 15 일 오전 바기오 투어 -> 마닐라 도착 및 마닐라 다운타운 YMCA 에서 저녁식사 -> 2박 3 일간의 여행 마무리!



☺ 지니님이 대화방에 입장하셨습니다.

☺ 썬님이 대화방에 입장하셨습니다.

썬: 아 벌써 우리가 여기에 온지 세 달이 다 되어가네?

지나: 그렇게 말아야 시간 진짜 빠르다.. 소영 간사님이 말씀하시길 중간평가가 지나고 나면 세 달이 끝나고, 마지막 달은 너무 뒤숭숭해서 진짜 실질적인 달은 한 달 남은 거라고 하셨는데..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괜히 짹 하더라구.

썸: 그러게.. 언제오나 했던 중간평가도 벌써 지나가버렸네. 우리의 중간평가는 정말 특별했던 것 같애. 우리 중간평가 때가 마침 필리핀 YMCA 100주년 기념일이어서 마닐라를 방문하고 여행도 갔었잖아.

지나: 맞아. 사실 한국에서는 잘 몰랐는데, 필리핀에 와서 라온아피로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호스트 기관인 YMCA 에 대해 더 많이 보고 생각하게 된 것 같아. 특히 이번 여행에서 말야.

썸: 완전 동감 ^^! 나도 한국에 있을 때는 단순히 Y가 어딘가에 있다는 것만 알고 살았지 어떤 일을 하는 기관인지 잘 모르기도 했고 사실 관심도 크지 않았어.. 하지만 이번 여행을 계기로 좀더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과 호감을 가지기 시작한거 같애.

지나: 응 나도 나도. 이번 여행을 통해 YMCA가 더 궁금해지고 좋아졌는데, 난 그 시작이 거기에서 만난 사람들로부터였던 것 같아.

썸: 어, 나도 그렇게 느꼈는데? 네두?? 100주년 기념일에서 만난 분들 그리고 YMCA 여행을 하며 만났던 분들 모두 인상도 너무 좋고 따뜻해서 '나도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라는 생각을 여행하는 내내 가졌던 것 같아. 그리고 그들이 YMCA 에서 일하는 게 단순히 직업을 넘어서 그 삶 자체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럽기도 하도 예뻐 보이기도 했어.. 너는 무엇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나: 나는 한 단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 사람이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자 그 단체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 어떤 단체를 알기 전 내가 바라볼 수 있는 모습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난 항상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열정적이게 하는 걸까?라는 궁금증을 품거든. 내가 이번 여행에서 만난 Y 사람들은 모두가 친절하고, 긍정적이고, 또 열정적인 사람들이었어. 그렇기에 Y가 더 좋아지더라구. 음.. 있잖아 우리 brother 카산! 스랴랑카에서 오신 분. 그냥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더라. ^\_^

썸: 아~~~ 항상 미소 짓고 계셨던 그 분..! ma'am Boonchin(National Councilor of YMCA in USA)도 영아 말씀처럼 정말 simple 하고도 호기심 가득하신 분이었어. 특히, 우리가 100주년 기념일 두 번째 중간평가를 가잔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마미와 함께 미팅룸에 오셔서 조언을 아끼지 않는 모습에 반해버렸지..



지나: 응응 그 분을 보면서도 많이 느낀 것 같아. 아, 여기서의 우리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부를 때 쿼야, 아메리고 부르잖아. 물론 그 안에 존경의 의미가 담겨있는 거지만 그래도 친근한 오빠, 언니를 부른다는 느낌이 들어.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과 허물없이 편하게 잘 지낼 수 있었던 거 같아. 평가시안 Y에서 한 쿼야와 편하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름을 물어보았지. 그랬더니 옆에 걸려있던 플래카드를 가리키면서 내 이름 요가 말씀하셨는데 오 렐수렐수이렐수! 평가시안 Y의 프레지던트셨어.. 그런데 나이나 지위에 상관없이 친구, 친근한 오빠와 함께 있는 느낌이었어. 물론 나의 쿼야는 쿼야 팝스뿐이지만...^\_^

썸: 난 금요일 저녁 100주년 기념 파티에서 그와 춤추던 순간을 잊을 수 없어. 물론 나의 파트너는 아니었지만 나와 함께 춤을 추었던 가요오빠(쿼야 팝스)를 걷노잘하며 아.. 정말 멋진분이다.. 실력과 외모와 재능도 겸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친절하신 분이구나 라는 생각까지 들었어.(10월호 인물소개 참고) 물론 멜빈(평가시안 YMCA 스텝)도 좋아! 너는 100주년 기념행사 때 어떤 것들이 재미있었니?

지나: 나도 물론! 한복입고 덩실덩실 춤추던 것도 재밌었고ㅋㅋ 아 그 다음날 오전 행사에서 합창을 들었을 때도 그렇고 그날 바로 만났던 황총장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언을 들었던 시간도 좋았어. 잠깐 행사 중일 때는 딱 한자리에 앉아서 행사 진행을 보고 있었잖아. 근데 진짜 거기 있는 사람들과 웃고 어울리고 있다고 느꼈을 때는 지나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가볍게 나눌 때, 함께 춤출 때, 그냥 같은 자리에 앉아서 그 시간을 공유하고 있다고 느낄 때 (노래 들었던 거) 뭐 그럴때였어.

썸: ㅋㅋㅋ 나도;; 세션(?)에 참석했을 때는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중간 중간 공연이나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 나눴던 것들이 더 재미있었던 것 같아. YMCA 여행은 어땠니? 내 경우는 산파블로 YMCA 와 같은 모습을 상상하고 갔었는데 생각했던 보다 세 YMCA 의 외관이 너무 좋아서 사실 속으로 무지 놀랐었어. |



지나: 오.. 맞아 진짜 좋더라 처음에 평가시안 갔을 때 와.. 좋네 했는데 바기오 가서 호오.. 진짜 좋은데? 했는데 마닐라 다운타운 가서는 허.....억 진짜 진짜 장난아니네 라고 생각했지... 한국에서 내가

살던 광주 YMCA 나 우리가 훈련 받았던 안산 YMCA 등을 보면서 소박한 공간이라고 생각했는데 YMCA 가 이렇게 크고 다양한 시설을 갖출 수 있구나.. 라는 걸 처음 일았어. 호텔 같은 숙박 시설은 물론이고, 강당, 수영장, 농구장까지..



썸: 그런데 단순히 시설이나 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내용 자체만 볼 수 있어서 아쉬웠어. 물론 우리가 머물렀던 시간이 적기도 했지만 외양적인 부분보다도 YMCA 의 비전이나 미션에 맞게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가 사실 더 궁금했어.

지나: 수영장이나 체육관, 호텔 같은 시설 또한 Y 의 수익 사업이라 빠질 수 없는 부분이었지? 이런 부분도 물론 필요하지만 YMCA 가 지향하는 바에 따라 진짜 그 YMCA 가 자리잡고 있는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 프로그램 등의 부분들을 보고 싶었는데.. 팡가사산에서 멜빈과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하다가 ALS 이야기가 나왔어. 난 그냥 산파블로 YMCA 안에서 DepED 와 협력하는 프로그램인지 알았었는데, 알고 보니까 필리핀 전 지역에 ALS 프로그램이 있는 거였어. 멜빈이 있는 팡가사산 YMCA 도 ALS 를 되게 하고 싶어하는데 아직 그걸 적용하지 못했어. 산파블로가 비교적 작은 도시이긴 하지만, 엄마 혼자서 그렇게 직접 돌아다니면서 적용하고 실행했다는 것에 대해 무지 자랑스러웠어. 그리고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첫 단계부터 함께 움직이고 그 마을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다는 게 뿌듯했어.

썸: 그들이 ALS 를 하고 싶어하는 이유가 단순히 여기의 프로그램이 좋아보여서..가 아니라 비전이나 미션에 부합하다고 생각해서 하고 싶어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는 산파블로 Y 로 우리가 오게 되었고 마미를 만난 건 정말 행운이라 생각해.

지나: 음 맞아! 사실 산파블로 YMCA 에서만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5 개월동안 살면서 Y 에 대해 더 관심 갖게 되었다고 해도 이곳 한군데에만 머무를 수 있었던 시각이, 이번 여행을 통해 다른 Y 는 어떻게?하고 의문도 가지게 되면서 여러 곳을 둘러볼 수 있게끔 시각이 넓어진 거 같아. 그러면서 당연히 우리 산파블로 Y 에 대해 더 잘 알게 되고 애정을 갖게 된 것도 사실이고. 아 그런데 이번 여행은 다른 지역의 Y 만을 방문하게 아니라 그 지역의 모습도 함께 돌아보는 시간이었잖아? 가보지 않았던 팡가사산과 바기오! 어땠니?

썸: 팡가사산에 갔을 때, Capital Building(우리나라의 도청과 같은 곳) 앞에서 우리를(YMCA) 위한 조례, Capital Building 구경, 홀 안에서 전통공연 관람했던 것 등이 모두 처음 겪어보는 대접이었고, 독특한 경험이었어. 물론 라온아피만을 위해 베풀어 주신 건 아니었지만 이분들 사이에 우리가 끼어서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영광스러웠어!! 너는 어땠니? 우선 팡가사산은..??



지나: 음.. 오전에 시티투어 버스를 타고 돌아다닐 땐 솔직히 둘러본 장소들이 다 뼈까뻣, 군더더기 없이 다 깨끗하고 좋아서, 아~ 이렇구나 라는 생각으로 본 것 같아. 사실 팡가사산에서 더 재미있었던 건 첫날 도착하고 나서의 밤이었어. 그 때 다른 멤버들은 자고 있었고 나와 다니엘은 우연히 밖에 나갔다가 다른 delegate 들이 함께 모여 놀고 있기에 쿡아 지미(팡가사산 YMCA 의 General Secretary)의 권유로 거기 가게 되었지. 평소와 같이 가라오케로 노래도 부르고 와인도 마시고(이건 평소와는 다름).. 그러다가 밖으로 나가자고 해서 트럭 한 대, 오토바이에 매단 수레 한 대로 드라이브를 했어. 절대 못해볼 경험이라며 날 수레에 태우고서 텅 빈 도로를 질주하는데 진짜 꿈만 같았어.. 아 근데 알고 보니 그 수레는 돼지를 나르던 수레였다고 하더군..... 도니멜이 탔어야 했는데.. 그 때 야시장도 둘러보고 밤 늦게까지 열려 있는 식당에 들어가 다른 버전의 마미를 먹으며 (근데 역시 마미는 산파블로의 마미야 7, 9 월호 이달의 마사샵 참고) 무튼 진짜 그냥 편하게 이야기 하며 웃고 있는데 문득 아 이게 진짜 사람들이랑 mingling 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느낌이 들었어. 다양한 국적과 모습과 성격을 가진 다 다른 사람들이었지만 그거 상관이 없어. 아 그리고 그 때, 필리핀에 온 첫 날부터 만났지만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던 멜빈과도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좋았어!



썸: 아~ 멜빈을 만났으면 나를 데리고 가야지;; 왜 날 그냥 재웠니!!!! 나는 그날 일찍 잠이 들어서 사람들과 즐기진 못했지만 무튼 네가 이미 말했던 것처럼 팡가사산의 느낌은 바기오와는 정말 다른 느낌이었어. 비유를 하자면, 팡가사산은 유럽국가 중 중세시대 궁전을 돌아보는 느낌(화려하고 질서정연하고 깨끗함)이었다면 바기오는 지중해 국가의 촌마을을 여행하는 느낌이라고 할까.. 물론 아직까진 유럽여행을 가보진 않았지만 ㅋㅋㅋ 매체를 통해서 많이 접했어

ㅋㅋㅋㅋ 바기오는 어떤 느낌이었니??



지니: 음 우선 그 곳이 고지대에 위치한 도시잖아. 그래서 그런지 집들이 뒤죽박죽 배열되어 있는 모습이 꼭 동화같았어. ㅋㅋ 같은 층의 집인데도 다 위치가 다르고 자유분방한 색들로 색칠되어 있는 모습도..! 아 그런데 바기오는 필리핀에서 킨몬 장소로도 유명하다고 하긴 하더라.. 한국 유학생들도 선선한 날씨 때문에 정말 많다고 하구. 바기오에서는 시간이 넉넉치 않아서 많은 곳들을 둘러보지 못해 아쉬웠어. 뭔가 바기오는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도시 같아. 그래서 꼭 다시 찾아서 마음 가는 대로 돌아다녀보고 싶더라고. 후후

썸: 하~~~ 근데 바기오는 도시모습만큼 사람들도 멋있지 않나? 특히 저쿠파티 때 피아노치셨던 president(바기오 YMCA 프레지던트)!!! 정말!! 영화 '피아노 치는 대통령'을 상기시키는 분이셨어. 모르는 곡이 없으셨고... 그 목소리에 퐁당 빠질 뻔 했어. 나는 그분이 노래하시는 모습을 보고 마미에게 농담처럼 마치 시장님 포스가 난다고 말을 했는데, 진짜로 시장이 되실 수도 있는 위치에 계신 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 그리고 실제로 필리핀 Y 에서는 president 분들이 정부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도 들었지. 우리는 그 분 덕분에 시청에서 시장님도 직접 뵈었잖아. 필리핀 Y 는 정부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았어.



지니: 이런 이야기를 듣고 한국의 Y 는 어떨까 또 생각해볼게 되더라구. 물론 한국의 Y 에 대해서도 아직 많이 아는 건 아니지만 우선은 사회의 흐름이나 움직임에 대해 관심 가지려 애쓰고 또 운동성을 가지고 있는 성격이 주된 것 같다고 느꼈거든. 이 얘기 듣고 보니까 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는 같은 단체여도, 지역이나 나라마다 그 성격이나 성향이 다를 수 있을 거 같아.

썸: 응 그렇지. 어쨌든 바기오에서의 저녁식사시간은 잊지 못할거야.. 음식도 너무 너무 맛있었고, 음악을 사랑하는 필리핀 사람들(그들은 모두 엔터테인먼트!)의 모습도 엿볼 수 있었고 함께 원을 그려 추었던 율동도 잊지 못할 거야.

지니: 아 맛다 그랬었지! 역시 필리핀 사람들은 모두 흥겨워ㅋㅋ 덕분에 나도. 아 우리 마지막으로는 마닐라 다운타운 Y 에 갔었잖아? 거기 또 어땠는지. 사실 여행 내내 맛있는 음식이 끊이지 않았는데 마닐라 다운타운 Y 는 최고 중에 최고였어ㅋㅋ 진짜 이 정도면 끝났겠지.. 하면 음식이 나오고 또 나오고 한 열 가지씩은 훨씬 남게 음식이 나온 거 같아. 물론 완전 맛있게 먹다가 그 날 밤 숙이안 좋아서 호텔 로비에서 밤을 지새웠지만... 그것 또한 좋은 경험이었어 엉엉.. 난 역시 중국 음식보다 필리핀 음식이야.. ㅋㅋ

썸: 아~ 그 음식들이 눈에 선하다! 다운타운 Y 에서 음식 말고도 또한 놀랐던 것은 스텝의 대부분이 중국인이라는 거였어. 물론 차이나 타운에 위치하고 있으니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방문했던 Y 와는 또 다른 색채의 느낌이었을까..?!

지니: 응 그렇게 말이야. 그런데 어쨌든 이 다운타운 Y 도 필리핀 Y 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이니깐. 아주 짧은 시간이라 프로그램이나 다른 역할들을 보진 못했지만 Y 의 비전이나 방향성을 추구함과 동시에, 다른 국가에서 그 자국민들끼리의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 역할도 할 수 있구나를 느꼈지.. 여기 Y 만의 다른 특징이 있었구나 싶었어.

썸: 이렇게 다시 이야기해보니까 정말 재미있는 여행이었어!@@;; 여기 필리핀, 특히 산파블로 YMCA 에,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오게 된 건 정말 행운이라는 생각이 들어. 이런 프로그램을 만든 코리아 YMCA 와 이 프로그램을 후원하고 있는 국민은행에 무한한 감사를 돌리고 싶어.

지니: 난 정말 럭키해!!! 아 맛다 내가 이번을 여행을 통해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겠다고 느끼는 거 있는데 들어볼래?? 진짜 'Young 하게 살아야겠다!'. 지금까지 좌우명이라 할 건 없었지만 앞으로 진짜 이렇게 살고 싶어. 마음도 생각도 태도도 젊게! 그리고 즐기면서. 그래서 앞으로 필리핀에서의 2 개월도 이렇게, 돌아가서도 이렇게. 우리의 2 개월이 더욱 더 가대되지 않나?

썸: 정말 기대된다~!!!

지니: 더 잘 살 수 있을 거야, 우리 Young man 이니까!

지니님이 대화방을 퇴장하셨습니다.

썸: 지니야 어디 갔니? 난 누구랑 이야기하니.. 혼자인거니

## 녹색 소비를 위한 우리의 약속 점검!

하나. 사용하지 않는 콘센트 뽑기 / 사용하지 않는 전구 끄기 (★★★★☆)

지난 달에 비해 더 잘 지키려는 노력이 보였던 11 월이었습니다. 아직 완벽히 습관화되지는 못했지만 의식적으로 한번 더 확인하려는 아띠들의 모습에 이번 달은 별 4개! 별 5개가 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신경 써야겠습니다.

둘. 계획적인 소비 (★★☆☆☆)

모두가 낫설었나 봅니다. ‘잔반 없애기’ 실천사항에 이은 새로운 녹색 소비 행동 강령이었지만 모두가 이전과 같이 머리 속으로 대략적인 생각만 가지고 소비했던 한 달이었습니다. 매 월, 지출을 계획하여 신중히 소비하기로 한 우리의 두 번째 녹색 소비는 아직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11 월의 스케치북



### Albert's Reflection

11 월 마지막 한 장!!

“부족하다고 걱정하시나요? 부족하기 때문에 채울 수 있는 겁니다.

제 모든 걸 쏟아 붓고 다시 부족해져서 돌아오겠습니다.”

이 말은 스리랑카 팀 오혁준 단원이 쓴 라운아띠 각오입니다. 왜 이제 와서 남의 각오를 가지고 무슨 것이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11 월이란 중간 달이 끝나고 제가 가장 많이 느꼈던 새로운 출발이라는 생각에서 다른 단원들의 처음 각오를 읽어 보았습니다. 다른 먼건 각오가 있지만 이 글이 저한테 참 잘 와 닿더군요.

중간평가가 끝나고 개인적으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벌써 중간이 왔구나” 부터 시작해서...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초심을 다 잡기 위하여 나를 포함한 팀원들의 줄국 전 에세이와 각오를 보며 팀원들을 더 이해하고 남은 2 개월을 준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필리핀에 와서 많은 것을 채웠습니다. 11 월을 보내며 다시 한번 부족한 마음으로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생각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나를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승건 파이팅! 필리핀 팀 파이팅! 라운아띠 파이팅!



# Daniel's Reflection

: 라온아띠 돌아보기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네요. 비가 오는 7 월의 어느 날, 4 학년 1 학기를 마치고 여름 방학 동안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 도서관을 찾았었죠. 이제 막 집중을 하려는 찰나, 낯선 번호로부터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라온아띠 6 기 필리핀 팀으로 선발되었다는 전화였어요. 사실 제가 라온아띠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었습니다. 0.1%의 희망조차 면접 후에 지워 버렸었거든요. 어쨌든 이때부터 라온아띠와 저와의 인연은 시작됐습니다. 어느덧 5 개월이 지났네요. 필리핀에 온 지도 석 달이 흘렀고요. 11 월에 중간 평가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중간평가를 치르다 보니 자연스럽게 지난 날들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아띠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직후부터 나는 왜 라온아띠가 되고 싶은 건지에 대해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적지 않은 시간 동안의 고민 끝에, 저는 라온아띠가 되어 나를 돌아보고, 이전에는 몰랐던 나의 새로운 모습을 알아가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나를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싶다는 생각에 다다랐습니다. 하지만 건정으로 내가 라온아띠가 되려는 결정적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과거에는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왔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이웃과 더불어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야겠다 싶었어요. 내 삶의 중심에 내 자신을 놓기보다는,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놓기 위한 첫 걸음이 바로 라온아띠여야 한다고 생각했죠.

이렇게 시작된 라온아띠의 생활은, 짐작은 했었지만, 역시나 평탄치 않더군요. 내가 몰랐던 나의 모습에 실망하고 좌절하기도 했어요. 가슴이 쓰리도록 아픈 날도 있었죠. 하지만 주저앉을 수 없었어요. 어쨌든 내가 선택한 길이었고, 또한 이 시간을 잘 견디고 이겨내면 훗날 더 성장한 내가 서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어느덧 석 달이 지났어요. 앞으로 남은 두 달, 내가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이 행복하고 즐거울 것이라곤 조금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행복할 땐 온전히 행복하고, 슬프고 괴로울 때는 이를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자혜를 소망할 뿐이죠. 어쨌든 너무 큰 기대일 수도 있겠군요. 어쨌든 좋습니다. 아무래도 좋아요. 왜냐하면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외롭지 않습니다. 그 동안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거든요. 2012 년 2 월에는 2011 년 7 월의 나보다 겸중 자랏을 나를 기대하며 다가올 내일도 으샤으샤, 힘차게 시작해볼까 합니다.





## Genie's Diary

나는 Young하다!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장소들을 돌아다보던 한 달이었다.

특히나 5개월의 딱 중간시점에 있던 여행은 색다른 장소뿐만 아니라 YMCA 라는 단체와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던 여행. 같은 비전을 향해 가고 있지만 다양한 프로그램, 환경, 분위기,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는 YMCA 에 대해 관심이 생긴 것은 물론, 특히나 긍정적이고 열려 있고

열정적이던 사람들의 모습이 나를 매혹시켰다. 그들을 보면서, 좌우명이랄 건 지름까지 없었지만 앞으로 이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Young 하게!’ 마음도 생각도 태도도 즐겁게! 이건 나이를 떠나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의 문제인 것 같다. 남은 2개월도 이렇게, 나의 인생도 이렇게 말이다.



## 청춘불패(青春不敗)? 청춘득패(青春得敗)!

나는 청춘이다. 청춘불패! 또한 나는 ‘청춘득패’라고도 말하고 싶다. 청춘은 실패를 얻는 시기라고. 누구나 살아가면서 시행착오를 거치기 마련이다. 20 대의 나에게 바라는 모습은 다양한 경험을 맛보면서 나만의 기준을 세워나가고 모든 것들에 대한 나만의 정의를 세워가는 것이다. 시행착오는 피해가기보다 맞서야 하는 것 같다. 그래야 무엇이 나에게 맞는 것인지, 바람직한 것인지 알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왕 시행착오 거칠 바야흐로 난 ‘주도적인 시행착오’를 해나가면서 살고 싶다는 다짐을 했었다. 필리핀 YMCA 100주년 행사로 마닐라에 왔을 때 만났던 수원 Y 사무총장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실패도 너희

것이고, 성공도 너희들 것이라고. 그러니까 무엇이든 자신감가지고 하라고. 맞다. 난 여기에 배우러 왔다. 문득 중간 시점에서 나와 우리를 돌아보니 알게 모르게 배우고 느낀 것들이 참 많다. 이제 이곳에 적응도 하고, 우리가 하는 활동들도 익숙해져서 정말 우리 마을처럼 지내고 있다. 이전 앞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갈 시기. 우리 마을 사람들과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 보다는 것! 어려운 점도 있고, 잘못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다. 하지만 즐거울 것 같다. 그러다 실패하면 자신 있게 이번엔 실패했어. 다음엔 더 잘 할 수 있어. 라고 외칠 것이다. 여긴 내가 선택한 삶이고 나는 실패를 얻으러 왔으니까.



## Honey's album



들꽃을 좋아한다.

길을 걸어가면서 만나는 필리핀의 들꽃은 참 예쁘다.  
한 송이 한 송이, 모두 다 사건을 찍어 간직해둔다.

사실 한국의 들꽃도 이렇게 예뻐했다.

그런데, '아 예쁘다' 하고 그냥 갈 길 갔다.  
굳이 사건기를 꺼내 간직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곳 필리핀에서는 꽃 한 송이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찰나에 마주치는 작은 장면도 소중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한국에서의 내 모습을 돌아본다.

나는 매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왔던가?

들꽃을 보며 깨닫는다. 이제야 되새겨본다.

필리핀에서든 한국에서든 내 삶의 모든 순간은 언제나 소중하다.  
그리고 특별하다.



# SUN'S Reflection

-타임머신 캡슐-

물은 날짜: 29.11.2011

물은 장소: 168 CARREON ST. BAGONG POOK

개봉 날짜: 2.2.2012 ~

만든 이: SUN

식상하지 않게 써보려 컨셉을 타임머신 캡슐로 잡아 보았는데 정말로 재미날지는 모르겠어요. 이번 달은 한국에 돌아가서 우리가 썼던 글들을 다시 꺼내보면서 회상에 잠겨있을 저에게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벌써 중반이 지났습니다. 12월이 지나면 우리는 또다시 돌아갈 준비로 바빠지겠네요. 이번 달도 바빴어요. (워;; 매달 바빴다고 말하긴 하지만요) 물론 중간 중간 푹 잘 쉬기도 했지만 이번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직접 계획을 세워 활동하기 시작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산 이그나시오(San Ignacio)라는 새로운 BRGY에서 ALS 수업을 새롭게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5기 때 수업했던 학생들보다 훨씬 열정적으로 수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5기 때 수업을 했던 터라 6기도 그리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산 그레고리오(San Gregorio)의 경우는 학생 수가 적어 아직까지 수업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Mapping을 나가보니 왜 학생들이 비가 오거나 날씨가 궂으면 수업에 늦게 오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BRGY 홀에서 집까지는 정말 멀었습니다. 교통수단 없이 걸어야면 얼마나 힘이 들지 이해가 갑니다.

피딩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매주 목요일마다 진행하고 있어요. 이제 제법 제 머릿속에서 이름과 아이들의 얼굴이 매치되기 시작합니다. 점점 친해질수록 아이들은 시끄럽고 개구쟁이가 되어 갑니다. 그래도 저번 주에 가졌던 활동은 정말 성공적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번 주는 미술수업을 가졌었는데요. 학교에는 미술 수업이 없어서인 건지 혹은 우리의 아이디어가 좋았던 건지 개구쟁이 녀석들도 집중을 잘 하더라구요. 우리는 이외에도 어린이들을 위한 방과후 활동을 YMCA에서 가지려 합니다. 이에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는 앞에 글에서 설명되어 있을 테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돌아가기 전에 산파블로 YMCA에 작은 도서관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훈련 받았던 안산의 작은 도서관 프로그램을 머릿속에 그려봅니다.

이번 달은 제 몸도 마음도 활동에 완전히 집중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무언가에 더 집중하고 싶기도 했고요. 여기에서 하는 활동 자체도 무척 재미있습니다. 한국이 그립냐고요? 한국에 있는 분들이 떠오르는 건 아니지만 아니라고는 못하겠어요. 한국음식이 요새 부쩍 머릿속에 맴돌거든요. 예전에는 보지 않았던 TV도 요새는 아리랑 채널로 돌려 시청하는 시간도 늘었어요. 하지만 6기 배치로, 필리핀의 산파블로 YMCA라는 곳에 제가 오게 된 것을 정말 신기하고 행운이었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달이었습니다.

사실 이 곳에 처음 왔을 때 했던 결심들은 벌써 저기 별나라로 가버렸어요. 그 중 하나였던 꾸준히 일기는 안 쓰지 벌써 몇 달이 지났을까요...?? 한국에 돌아갔을 때, 그때 그때의 보고들은 것, 느낌들을 적어놓지 않았던 것들을 후회하며 또다시 머리를 쥐어박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우리의 활동이, 저의 생각과 행동까지 부끄럽게 여기거나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산다는 건 어려운 것입니다!!



다음 호를 기대해주세요!

Salamat po^^